

눈·마음·렌즈 세계 눈으로 본 땅끝 해남

●김경운시화집 '그대 땅끝에 오시려거든' 출간



“그대 땅끝에 오시려
거든/일상의 남루 죄다
벗어버리고/빈 몸 빈 마
음으로 오시거나/행여
시간에 쫓기더라도 지
름길일랑 찾지 말고/그저 서해로 기우는 저
문 해를 이정표 삼아/산다랑치 눈에 소를
몰 듯 그렇게 고삐를 늦추고 오시거나”(‘그
대 땅끝에 오시려거든’ 부분)

여행길 풍광 담은
57편 시·73컷 사진 수록

김경운(사진)시인의 시화집 '그대 땅
끝에 오시려거든'(문학들)이 발간
됐다. 땅끝 해남을 노래한 저자의
시 57편에 해남 풍광을 담은 고
금렬·김종수·민경·박흥남
의 컬러사진 73컷을 엮은
결과물이다.

저자에게 고
향 해남



위에서부터 고금렬 '달마산 도술암'·'땅끝 일몰', 박흥남 '고천암 가창
오리 군무'.

은 삶의 터전이자 시의 원천이다. 첫 시집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
에서 살고 싶다' 이후 '신발의 행자', '바람의 사원', '슬픔의 바닥',
'무덤가에 슬퍼했지만 불었네'에 이르기까지 해남은 그의 시 무
대이자 사유의 텃밭이 됐다.

해남에서 나고 자란 그는 군과 대학 시절을 제외한 생의 대부분
을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다. 땅끝문화회와 김남주
시인기념사업회를 이끌며 '땅끝시인'으로도 이름났다. 이 책이
흔히 보는 '해남 땅끝' 여행서들과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군부독재와 광주항쟁을 겪고 전교조 해직교사로 교육운동에 투
신하기도 했던 시인은 이 땅의 모순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
려는 의지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점차 불교적 세

계와의
접목을 통해 시
적 사유와 감각의 깊
이를 더해왔다.

고재중 시인은 “마침내 땅
끝, 사자봉에 올라서서야 비로
소 그리운 이의 이름을 목 놓아 불
러 보라는 것. 그것은 오늘날 자본과
정보에 찌들어 사는 우리 인간의 본래성
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이
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김경운 같은
'오래된 미래'의 한 생활방식을 사라져야 할
유물로 간주하는 현대 속도 문명인에게 통렬
한 일갈을 놓는 풍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인은 1989년 무크지 '민족현실과
문학운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89
년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되고 1994년 복직해 고
향인 해남에서 교사와 시인으로 살면서 김남
주, 고정희 시인 추모사업과 고산문학축전 등
지역문화운동에 힘써왔다. 시집으로 '아름다
운 사람의 마음에서 살고 싶다', '신발의 행자',
'바람의 사원', '슬픔의 바닥', '무덤가에 슬퍼
했지만 불었네' 등이 있으며, 시해설서 '선생
님과 함께 읽는 김남주' 등을 펴냈다. 땅끝문
학회회장,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
했으며 현재 김남주기념사업회 회장, 고
정희기념사업회 이사, 고산문학축전
사무국장,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으
로 활동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



참회·성찰의 진술...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초등 임용시험 전국 최고령 합격자 이금태 자전적 에세이



2017년 전남도교육청 초등 임용시험에
서 전국 최고령 합격자가 된 이금태
(사진) 씨의 자전적 에세이집 '시차
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문학들
刊)가 발간됐다.

이 책에는 60여년 동안 살아오면
서 겪은 '운명이자 자신만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
는 이 씨의 삶의 모습들을 농축해 담았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30여 년 동안 교편만
을 잡아 오다가 교감 승진을 코앞에 둔 그는 2003년 교
육감 선거에 관련한 일에서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계받아 교직을 떠나게 된다.

이후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전기설비, 공사장
일, 고깃집 사장, 우유급식점 점주, 목욕탕 사장 등
을 전전했다. 눈여겨볼 점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가 천직이라고 믿어온 교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0년 광복절 특별복권으로 공무원임권이 회복되자 그는
다시 교직을 꿈꿨고, 결국 2017년 전국 최고령 합격자가 돼
그토록 염원하던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그는 지난해 2
월 해남북평초등학교를 끝으로 정년 퇴임했지만 현재까지
기간제 교사로 아이들과 함께 교사의 직분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그의 스승인 소설가 한승원은 “참회와 성찰의 진술인 이
책이 누군가에게 좋은 귀감이 될 터”라고 했다. 이형대 고려
대 교수는 “주체적 삶의 가능성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그 실
천적 과정에 대한 진술한 기록”이라고 했다. 이종율 전 국제
신문 기자는 이 책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잉태
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태수 저자
에세이스트 태수가 2년 만의 신작으
로 돌아왔다. 이번 신작에서 태수는 그
동안 선보였던 이야기보다 한층 성숙
하고 현명하게 삶의 행복에 가까워지
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새로운 것,
짜릿한 것,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행복하고 싶어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꼭 그런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알려준다. 이
책은 요란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
는 튼튼하고 단단한 태도를 담아냈다. 시끌벅적 기쁜 일
을 찾아다니기보다도, 율 일이 없고 별다른 나쁜 일이
없는 하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랬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곁에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페이지2북스·1만7천800원



▲사랑을 그린 화가들=이창용 저자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면서 한편
으로는 어렵고, 아프고, 외로운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공감한
다. 세계적 거장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그들도 역시 사랑에 빠지고, 설레고,
행복했다. 또 때로는 이뤄지지 않은 사랑에 외롭고, 아
프고, 방황했다. 이 책에서는 세계적 화가들이 남긴 작
품들에서 그 사랑의 일대기를 찾아 그들과 동행한다. 그
들의 사랑이 때론 불행하고 힘들고 비탄받아 마땅한 감
정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책을 읽는 동안 잊고 지냈던 마
음속 깊은 곳에 일렁이는 영감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행
복해질 것이다. /단꿈아이·2만원



▲나는 왜 괜찮은 내가 될 거야=이
승욱 저자
정신분석학 이승욱은 뉴질랜드에서
정신분석학과 철학을 공부한 후 귀국
해 청소년기관에서 전문심리상담위원
으로 활동하고, 심리상담기관에서 전
문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돌보는
데 헌신해왔다. 그는 청소년들이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
는 법'을 비롯해 나와 주변, 그리고 세상과 관계 맺기 위
해 생각을 키워나가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다. 특히 자기 이해와 자기 돌봄의 관점에서 성장이란 무
엇인지 설명하면서 그간 스트레스에 시달린 청소년들에
게 진심 어린 위로와 위안을 건넨다. /생각학교·1만5천원



▲쑥쑥콩=김혜진 글그림
'쑥쑥 콩'은 콩을 먹고 쑥쑥 커버린
아이의 이야기를 재미 넘치게 그린 상
상 그림책이다. 콩을 먹고 키가 커진 동
생은 무거운 자동차도 번쩍 들고, 멋진
광경을 즐기며 산책도 하고, 불이 난
곳으로 가 화재도 단번에 진압한다. 특히 높은 고층 빌
딩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 손을 흔들거나, 지나가는 비
행기에 인사하는 장면은 높은 곳에 대한 선망이 가득한
아이들의 마음을 간지럽힌다. 콩을 먹어야 쑥쑥 큰다는
어른의 권유와 콩이 싫은 아이의 갈등을 기발한 환상으
로 유쾌하게 선사한다. /웅진주니어·1만5천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